



비어 있음을 보는 사랑

전진은 목사(중등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890년 7월 만 32세의 젊은 선교사가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남겨 두고 선교지인 서울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언더우드·아펜젤러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헤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는 쉽게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장지로 써야 할지가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서울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더운 7월에 멀리까지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조정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겨우 양화진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헤론은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헤론은 조선 땅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묘들에 비해 작은 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묘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묘입니다.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왔다가 혹은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그만 병에 걸려, 이국 땅 조선에서 하늘 나라로 간 어린 아이들의 묘입니다. 본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선교지인 당시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안타깝게 죽어간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나 남 나라로 보낸, 그 부모된 선교사들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왔거나 다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혹은 마펏 같은 유명한(?) 선교사들 외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끊임 없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 방방곡곡에서 이름 없이(교회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들 대부분의 이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소리 없이 죽어 갔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채 펴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평생동안의 사역이 그다지 큰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된 선교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사랑은 비단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대하는 중학생들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일마다 중등부 학생들을 만나면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에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더 많이 요구하는 아이들, 발랄하고 자기표현에 능숙하지만 기분에 따라 부침이 심한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본의 아니게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 점에서 중등부 선생님들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천방지축인 이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 초에 정해진 6명의 아이들을 1년 내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돌보시고 대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기대에 못미쳐 실망하고 속상하실만 한데도 그런 내색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꾸준히 섬기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말을 정성껏 들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시간이 합쳐져, 마침내 그 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2면에 계속)

함 무 즐 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9호 (격월간)

발행일 2001년 3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lord-church.or.kr>

CONTENTS

1

비어 있음을 보는 사랑 /

전진은 목사

2

작은 하나 / 최종명 집사

3

21세기를 맞는 기독교인의 자세 /
맹용길 교수

4

사순절에 대하여 / 윤철호 교수

5

조금 먼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
김규하 집사

6

작은 일의 의미 / 이선이 집사
의학상식 / 서치영 집사

7

신앙클리닉

교회예절

성경퍼즐

8

환등기, 홀이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 조은삼 집사

시 / 박진수 집사

교회소식



작은 하나

최종명 집사(자비 1구역)

주님께서 '서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짐을 같이 지라!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라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봉사부에서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허영이나 욕심으로 일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작은 것에 신실한 마음으로 작은 불씨가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 6시 30분부터 기도하면서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8시 30분이면 교회 2층 골방에서 봉사부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섬김의 자세로 교제하며, 갈보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짐을 서로 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방주에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하면서 각자 주어진 작은 불씨를 태웁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층 현관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예배 오시는 성도님과 예배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미소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늘 주님의 방주에 아름다움으로 은혜가 넘침을 봅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천국인 것을...'

식당에서 국수를 함께 먹으며 피곤을 잊고 봉사부는 서로가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배에 생선을 가득 채우듯이, 말씀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봉사부의 식구들은 감격합니다.

"집사님, 수고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집사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사라도 받는 날이면 할렐루야!

오늘도 봉사의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해 가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봉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면서 체험하는 온유·사랑·겸손을 통해 일하는 것이 참된 진리와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만물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에버렛 헤일(Everett Hale)이라는 분이 지은 '하나(One)'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나는 단지 작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한 하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해야 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야 말 테다.

(1면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여줄 정도로 마음 문을 열었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에 의해 특히 교사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비어 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빈 자리, 빈 집, 빈 친구의 자리, 사랑 없는 빈 손과 빈 마음 등, 그래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결국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요"라고 하는 아픔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어디 한 군데 비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시간도, 가정도, 만나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아이들에게는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있는 비어 있음. 바로 그런 비어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고자 할 때, 우리들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하심이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합니다.

21세기를 맞는 기독교인의 자세

맹용길 교수(장신대)

21세기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천 년에서 21세기가 되는 논쟁은 뜨거웠지만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21세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 한 세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세기란 100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을 무엇으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긴 세월을 세부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지금같이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기적 전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계획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회는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세상을 단편진 상태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세상이 시작되어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유전적 질병까지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과 함께 인간의 호기심과 연구 의욕이 합해져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알아내고 결국 그 생명을 복제하려고 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하는 본인들의 의사이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시 말하면 농경시대에서의 정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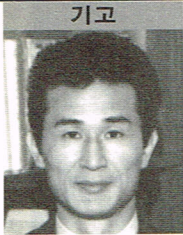
이러한 정의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힘과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력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치는 도덕성을 가지고 경제적 정의를 조정하고 실천하는데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 정치는 강력한 도덕성을 요청 받고 동시에 그 도덕성을 실현할 지도력을 요청받는다. 이 지도력은 도덕적 지도력이며 도덕적 정치가 아니라도 도덕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정치적 지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력은 국민들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신뢰를 주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형성되는 사회는 사람들에게 살 맛을 준다. 이로 인한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 결과이며 표현이며 의미이며 흔적이

다. 문화시민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삶을 살도록 요청 받는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교회는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래 근본적인 내용은 확실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회는 먼저 문화 이전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며, 그것의 구별되는 사명으로 인하여 경제, 정치, 사회 등의 형성을 위해 할 일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받는다. 즉 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부터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며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는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교인들은 친교를 하고, 동시에 그 친교로 인하여 봉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본래 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정치와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물질주의에 현혹되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급격한 간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환생을 믿는 새로운 경향과 영성(靈性)을 강조하며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양극적(兩極的) 현상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인들을 생활 신앙인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래의 삶 가운데 하나인 봉사를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21세기도 변함없이 이러한 교회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회 자신들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순절에 대하여

윤철호 교수(장신대 · 자비 8구역)

사순절(四旬節)은 기독교의 교회력에 있어서 부활절 전의 사십일 동안의 기간으로서, 금식과 참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이다. 영어로는 'Lent'라고 하는데 이 말은 '봄'을 의미하는 'Lenten'에서 왔다고 한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의, 주일을 뺀 평일 40일을 말하기 때문에 주일 6일을 포함하면 도합 46일의 기간으로서, '성회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불리는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 부활절 전날인 '성 금요일'(Good Friday, Easter Eve)까지 계속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4세기 초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음이 교회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그 본래의 의도는 부활절에 세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세례 예비자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참회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은 고난주간 또는 수난주간으로서 사순절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축하하는, 사순절의 여섯번째 주일인 '종려주일'(Palm Sunday), 또는 '호산나 주일'(Dominica Hosanna)에 시작된다. 이 주간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으며(월요일),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셨으며(화요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적들의 음모가 진행됐으며(수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으며(목요일), 적들에 의해 불합적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금요일), 무덤에 묻히셨다(토요일).

고난주간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 금요일인데,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불리는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사순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근신하는 기간이다. 사순절이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재는 회개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재를 뒤집어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러므로 재의 수요일은 곧 속죄일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므로, 우리는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란 단지 감정적인 심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ia)는 삭개오가 보여준 바와 같은 윤리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차원의 '돌이킴'(turn around)을 의미한다. 사순절은 이러한 전환과 돌이킴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사순절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 이입을 통해 그 현장을 마음 속에 재현함으로써 그분이 당하셨을 고통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추체험(追體驗)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8:17)."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으로써 당하는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 사순절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기독교인에게 고난과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일시적인 고난은 단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된 환상이며,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다. 사순절에 우리는 거짓된 환상이 아닌 부활신앙과 절망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한다.



조금 먼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김규화 집사(자비 14구역)

저희 가정의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때는 1995년 9월, 경기도의 왕시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엔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했고, 해가 바뀌어 교구 목사님의 심방을 받을 때마다 “먼 곳에서 교회 오시느라 힘드시죠?”란 말을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말에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어 교회가 더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주일예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는 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먼 곳에서 오는 믿음(?)이 대견하다”는 칭찬을 가끔씩 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저희가 가까운 교회에서도 굳건히 설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해 주님의교회까지 와야만 한다는 것이고, 미안하다는 것은 조금 멀다는 것 때문에 교구 목사님께 신경쓰실 일을 하나 더 해 드린다는 것이고, 감사하다는 것은 저희 가족이 교회를 오갈 때 매주일 소풍가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준비한 빵, 과일을 먹으며 아이들과 경쾌한 유행 음악을 따라 부른다든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들으며 남편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저희 가족에겐 소중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좀 가까우면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찬양예배도 자주 드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상황을 주신 까닭이 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으로 온 후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한 후 나눔을 갖는 모임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묵상을 다른 분들과 서로 나누고 들으면서 제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는 기대는 첫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 정돈되어 보였던 주님의교회 식구들과는 달리, 나눔방에서 만난 분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지쳐 있었고, 외모에서도 찌들어 보이는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해서 힘겹게 두 아이를 부양하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자매, 중2때부터 파출부 일을 하며 고생을 했지만 성장해서 만난 남편과 파경을 맞고 또 재혼해서 다시 이혼한 자매, 사별한 남편의 몫으로 떨어질 유산 때문에 시댁의 눈치만 보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매, 남편에게 학대 받고 아이마저 낳지 못해 아무런 희망조차 없고 죽고만 싶다는 자매님 등... 그분들은 그저 나눔방에서 말씀을 묵상해 오는 것조차 전혀 지키지 못한 채, 자기의 신세 한탄이나 푸념,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만을 그토록 힘들게 하시는 지에 대해 몇 시간씩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저처럼 묵상을 통해 원가를 나누며 얻으려 했다가 기대 외로

유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포기하고 오지 않는 분들을 보며 저도 ‘그만 두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각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보니 자신이 속한 교회를 우선시 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등 끝에 나눔방에 모이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애기를 자매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일, 수요일예배 합해 교회에서 접하는 두 시간 남짓의 만남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접하는 우리의 만남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이며 교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교회 자매님들은 주님의교회에서 배운 저와는 다르게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제가 들고 은혜가 되었던, ‘새벽기도, 성장과 치유, 성서강해, 새신자반, 성숙자반’ 등의 테이프를 나눔방에 갖다 두었습니다. 한 자매가 ‘성장과 치유’ 테이프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으며 자유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의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테이프를 돌려가며 들었고, 저 또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전해 받고 또 다른 은혜를 느꼈습니다. 나눔방에서 자매들은 차츰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나 아픔을 얘기하면서 세상 속의 만남과 같이 뒷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서로에게 유익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눈물과 한숨 짓는 자매들을 통해, 겉으로는 주님을 좇는 척 하면서도 눈높이를 위로 하려 했던 저를 점점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결국 상처투성이로 보이는 자매들을 통해 교회 먼 곳에서도 주님은 저를 다듬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가 가까웠으면...’ 하는 것은 저만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함께 계셔 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에도, 조금씩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도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의 의미

이선이 집사(충성 20구역)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많은 생명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 손, 눈 모든 기관과 부분들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하루가 시작되어 갑니다. 저 또한 주부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좁은 공간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제 공장인 부엌으로 향합니다. 제 아들은 엄마의 직업을 늘 인정해줍니다. 학교에서 부모의 직업란에 기재할 때면 '전문주부'라고 자신 있게 적어 놓곤 합니다. 저의 남편도 제가 밥을 지으며 빵을 만들어 놓고 "어때, 잘했지요?"하고 물으면 저에게 "그럼, 자기 직업인데..."라고 말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부엌이 복잡한 것을 보면 "당신도 '장비'를 최대한 줄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내봐"하는 남편의 말 속에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해 다시금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칫 사회 활동을 했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들이 아가엄마가 되어 "이렇게 집안 청소나 하고 아이나 보면서 고급 인력을 써줘야 하나"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신이 낳은 생명을 남편의 도움과 더불어 자신의 손으로 빠르게 길러내는 일은 사회 일 못지 않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의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는 마음가짐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침대 밑의 쌓인 먼지들을 말끔히 닦아내고 닦을 때의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은 밖에서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에 자족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은 없으리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건전한 발전을 멈추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속에서 너무도 큰 감명을 받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양손을 모두 잃은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양손이 다시 주어진다면 전 절대로 세탁기에 빨래를 넣지 않을 것이며 고무장갑을 끼고 빨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맨손으로 할 겁니다. 빨래의 그 감촉을 손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손을 움직여 쓰레기를 버리는 일조차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고로 양다리와 양팔을 잃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죽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살아서 우리 곁에만 있어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처자식들이 "언젠가는 지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결 같은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있었습니까.

그 후부터 아버지는 말로 가족들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그가 있는 곳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큰 것을 바라며 큰 것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각자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보며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고통은 더 밝은 내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언



헌혈은 왜 해야 하는가?

서치영 집사(사랑 2구역)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모른척 한다는 것은 이유라고 볼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피마저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 인색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계명 중에서 둘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루에 50ml씩 새로운 피를 생산하고 3~4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피로 대체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여자는 체중의 7%, 남자는 체중의 8%인데 여자 45kg, 남자 50kg 이상인 사람은 320ml~400ml까지 60일에 한 번씩 헌혈하여도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예비로 쓰라고 전체 몸에서 필요한 피의 10% 정도를 더 보유하도록 설계하시면서 10% 정도가 남아도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피마저 2000년에 혈액을 수입한 외화가 1,100만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2억원이고 혈액량은 135,200l이었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박애와 봉사정신이 기독교의 사명일진대 1,200만 하나님의 자녀중 3.3%인 40만 명만 헌혈을 하여도 야까운 외화를 절약하고, '피 수입국'이란 국가적인 수치를 면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 설 수 있습니다.

60일에 한 번씩 헌혈을 하면 우리 몸의 각종 질병,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을 검사해서 10일 이내에 집으로 통보해주시 무료 건강검진도 되고, 헌혈증을 받아 두었다가 필요한 이웃에게 주어 긴요하게 사용토록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Q.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겪으면서 “과연 신앙인이 일반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입으로는 예수의 사랑을 외치면서 더 많은 질시와 비판이 교회 안에서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라는 회의를 갖게 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사람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처럼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저의 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A.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갈등은 오늘의 교회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때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 두는 일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한탄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싶으십니까?

성경퍼즐

	1	2		3				
4						5		6
		7		8				
9			10					
						11		

가로열쇠

1. 태초에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은?(창 1장)
3.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몇 번째 날입니까?(창 1장)
4. 홍수 후 노아가 땅의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 날려보낸 새는?(창 8장)
5.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보내주신 것은?(창 9장)
8. 야곱의 첫 아내, 이스라엘 여섯 지파의 어머니(창 29장)
9. 노아 홍수 때 비를 내리신 날수는?(창 7장)
11. 아브람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창 12장)

세로열쇠

2. 구약 성서의 첫째 권은?
3.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창 22장)
4.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마 13장)
6.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출 8장)
7.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계 21장)
9. 사명받아 파견된 자, 열두 제자(마 10장)
10.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원(창 25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4월 8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

‘따뜻한 교회’ 만들기

우리 주님의교회가 창립된 지도 벌써 13년째에 접어들었다. 금년 1월말 현재, 청년들을 제외하고도 등록된 성인 교우 가정이 2,160여 가정이고, 등록된 성인 교우 수는 약 3,120명 내외이다. 특별히 정신여고 새 강당으로 이사온 후 최근 수년 사이에 교우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 주일날 교회에 와도 아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교역자들조차도 예배 후에 인사하다 보면 아는 얼굴보다는 처음 보는 듯한 분들이 더 많다는 느낌을 갖게 될 정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로비에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웃고 나누던 따뜻한 대화들... 식당에서는 반가운 얼굴들과 국수 한 그릇 앞에 놓고 훈훈한 정담들로 주일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들이 점점 옛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래 된 교우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새로 오신 분들이야 오죽 할까? 많은 새 교우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신다. 어떤 분은 등록을 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걸어 오는 분도 없었고,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아 주는 분이 없노라며 아쉬움과 고통을 토로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공동체의 공동체됨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도들의 진실된 교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엡 2:22)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거창한 운동보다도 '따뜻한 교회', '정이 있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모르는 교우와 인사를 하고, 잠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에게 다가가서 통성명을 하고 악수를 청하고 말문을 열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들이 아닌가? 처음에는 혹시 어색한 점이 있어도 몇 번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고 서로 서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면 교우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주님의 교회 전체가 한 식구처럼 정감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이다. 특별히 구역이나 부서에 새로운 분이 들어 오시면 그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의 교우들이 만남의 자리나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구역에 새 가족이 오시면, 처음 6개월 동안 권사님이나 권장남은 목사님과 별도로 가정 심방이나 전화 심방을 몇 번 하고, 구역원들도 순번을 정해 돌아 가며 그분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 본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사랑을 표시할 때 비로소 진실된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환등기, 홀이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조은삼 집사(희락 13구역)

지난밤 나는 잠자리에서 갑자기 몽클한 추억의 사진을 그려 되새겨 보았다.

환등기, 홀이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전남 순천에 있는 기독교학교 교목이셨다. 그 당시 내가 초등학교 시절, 매년 기독교학생회 학생들과 농촌 봉사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인근 시골 교회로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나가셨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환등기'라는 것을 집에 가져 오셔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름날 저녁, 기억차 한옥의 처마끝에서 대문간을 잇는 빨래줄에, 홀이불을 걸고 환등기를 돌리셨다. 우리는 마루와 뒷마루, 대나무 평상에서 동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 다같이 영화를 보았다. 그때의 으스스함이란... 난 우리집에서 영화를 돌리는 것이 무척 기뻐고 그 환등기를 통해 움직이지 않는 그림으로 창세기와 모세와 삼손과 사무엘,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다.

환등기가 비취지는 자막인 홀이불은 앞뒤로 아주 얇은 보라색과 하늘색이었는데, 흰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홀이불은 성탄절 때 동방 박사의 옷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휴가였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의 천막이 되었다.

큰 집에서 베어온 대나무와 홀이불을 엮어 텐트를 치고 그 곳에서 모래의 따스함으로 잠을 자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물이 들어오는 바닷물 바로 앞에서 의자에 앉았다. 온가족이 '아침 해가 뜰 때(358장)'를 찬송하고, 엄마는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팔복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실 때 아무 해설이 없어도 무한히 그 말씀이 좋았던 그때였다.

지금이야 자동 자막이 스크르 내려오는 시대이고, 파워 포인트의 현란함을 교회 내에서도 나는 자연스레 볼 수 있고, 성경 비디오 테이프들이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안다. 천막은 또 얼마나 근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나에게 선명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그려진다. 아버지의 딸임이 무한히 자랑스러웠던 그때 영화를 돌리던 그 저녁처럼, 아니 그보다도 지금 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엄하신 아버지로 느꼈으나 이제는 너무나 사랑이 깊으신 것을 느끼는 셋째 딸이 마음속으로부터 무한한 박수를 아버지께 보낸다.

함께 줄 거의 하고 함께 줄 라
에서는 원고 줄 모 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박진수 집사(충성 14구역)

의와 진리에 순종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헛된 욕망을 가지지 않고
잠든 새벽을 깨워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진 마음으로 화를 추스리고
반딧불 같은 칭찬이나마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격려와 섬김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양지보다 음지에서
남모를 굶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딜 줄 알며
훗날의 소망을 잃지 않는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을 일생의 동반자로 삼고
고요한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소식

「복음의 삶」 주간성경공부

「복음의 삶」 주간성경공부가 3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주일 차량통행 및 예배 안내

주일에배 후 귀가하는 차량들의 정문 좌회전은 인근 도로의 교통에 큰 지장을 주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일에는 정문에서 반드시 우회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부 예배시 비좁은 예배 공간과 혼잡한 주차관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우님들께서는 1, 2부 예배에 많이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